

대한양계협회 소식

충남지부 창립총회 개최

지부장에 최민용씨, 부지부장에 전동용, 나재춘씨 선출



대한 양계협회 충남지부가 지난 4월 3일 오후 2시 대덕군청 회의실에서 본회 이필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충남도내 양계인 50여명 및 도내 축산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충북지부 창립총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나재춘씨의 그동안의 경과보고, 임시의장 선출등의 순으로 거행됐는데 이날 임원선출에서는 지부장에 최민용씨(한국바브록농장(주)대표) 부지부장에 전동용(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장), 나재춘(대전형제부화장대표)씨를 선출했다. 이번 충남지부 창립이 있기까지는 충남도내 양계인들의 노력이 구

준히 진행되어 이번 지부창설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가 있기전인 지난 3월 20일에는 충남 유성온천 별관에서 본회 총정택 전무를 비롯한 관계인들이 준비위원회를 발족,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지에산등 창립총회에 따른 준비작업을 해왔었다. 이번 창립을 본 대한양계협회 충남지부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본회 정관의 목적과 동일한 가금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과 가금사업의 개량발전을 꾀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기하여 가금업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에 두기로 했다. 이번 충남지부의 창립으로 양계협회의 지부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지부에 이어 다섯번째의 지부의 발족을 보게됐다.

제10회 산란검정계 입추

대한양계협회 제10회 산란검정계가 지난 4월 1일 김포에 있는 본회 능력검정소에서 입추를 시작했다. 이번 산란계입추구는 한협 122호등 총 9구로 국산계 4구, 바브록 B-300, 하이섹스 등 국내 수입 외국계 2구, 야콘 닉치등 공수된 외국계 3구등이 입추를 끝내 육추중에 있다. 이번 출품구중 이스라엘에서 출품된 야콘, 아파는 종란공수도중 파손란이 많아 육추수수 150수에

미달되고 있다. 이번 10회 산란계의 검정기간은 1975년 4월 1일부터 1976년 8월15일까지 500일간 검정을 하게 된다. 현재 대한양계협회 닭 경제능력검정소에는 9회 산란계 검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검정은 금년 8월 15일에 끝날 예정이다. 한편 제 7회 육용계 검정은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제7회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실시

제 7회 육용계 경제능력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종계장에서는 적극 출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검정기간 : 1975. 6.13~8.8 (8주간)
2. 검정장소 : 본회 점정소

3. 검정수수 : 9구 1,800수 내외
4. 검정대상 : 국내외에서 육종된 육용실용계
5. 출품종란수 : 1구당 400개
6. 출품의뢰서 접수마감: 1975. 5.3(토)
7. 종란수집 : 1975.5.18~5.20

(화)

8. 부화기간 : 1975.5.21~6.12

(목)

9. 출품료 : 1구당 30,000원
기타 세부사항은 본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정영교씨 입사

정영교씨가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기자로 입사하게 되었다. 정영교씨는 군복무후 전대 측대 수 의학과를 1972년에 졸업했다.

윤중덕 스위스 지부장 일시귀국

대한양계협회 스위스 지부장으로 있는 윤중덕씨가 본회와의 업무연락과 감별사의 해외진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일시귀국했다.

한국축산학회 제25회 학술 논문발표회 성료

— 중앙대학교 농과대학에서 —



한국축산학회의 제25회 학술논문발표회가 지난 4월 12일(토) 오전 10시 약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열렸다. 발표회가 있기 전 오전 10시부터 열린 기념식에서는 현재 축산학회장으로 있는 오봉국박사의 인사에 이어 중대 농대학장의 축사, 김동암상무이사사의 경과보고로 진행됐다. 또 기념식에서는 학회에 학술상을 기증한 서울농대 한인규박사와 송계원박사가 축산학회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주체적인 중앙대학교 농과대학에는 대형거울을 선사했다. 이번 축산학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전원이 학회에 입회함으로써 이사 1인을 일임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출간한 한국축산학회지 16권 4호, 17권 1호, 2호중 17권 1호는 愚田 이용빈박사 회갑기념 논문집으로 출간하고, 17권 2호는 東松 황영구 선생의 회갑기념 논문집으로, 앞으로 발간할 17호

3호 나광연교수의 회갑기념논문집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기념식이 끝난후 곧이어 이용빈 교수와 황영구선생의 특별강연이 열렸는데 이용빈교수는 한국의 양돈발전과정과 번식생리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사업을 회고하면서 설명했고 황영구선생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낙농관계의 슬라이드를 곁들여 그 나라의 진보된 낙농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부터 열린 학술발표회는 제 1, 제 2, 제 3 발표장으로 나뉘어 제 1 발표장은 영양, 사료, 제 2 발표장은 번식, 생리, 제 3 발표장은 육종, 초지, 가공 기타 분야로 나뉘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학술논문은 아래와 같다.

제 1 발표회

1.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이 유우의 유생산 및 rumen fluid의 pH에 미치는 영향.....남기홍, 김진옥, 육종용
2. 양돈사료에 동물성 지방 첨가 사양시험에 관한 연구.....이용빈, 이봉덕, 신원집
3. 부로일러 사료에 있어서 두 품종의 밀에 의한 옥수수 대치가 성장율과 사료효율에 미치는 영향.....한인규, 김춘수, 이봉덕
4. 병아리에 대한 비단백태 질 소화합물의 양적이용성 시험.....이영철
5. 필수아미노산 급여수준이 병아리 성장, 체조성 및 혈장유리아미노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이영철, 우 춘전
6. 유우용 사료배합의 비용분석.....한석현

7. 도토리의 사료이용성에 관한 연구.....이영철, 홍병주
8. 열량수준이 성장, 비육돈의 성장율, 사료효율 및 도체에 미치는 영향.....전관, 이용빈
9. 부로일러의 증체량, 사료효율 및 장기발육에 미치는 녹용의 효과.....배대식
10. Vinyl 梱包 Haylage 제조에 관한 연구(제 1보: 切斷長 및 충전밀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배 신석
11. 육성토에 있어서의 식엽의 요구량에 관한 시험.....서 경덕, 강 면희
12. 어린돼지에 대한 Mecadox의 설사방지 및 성장촉진효과...최성식, 한인규, 최진호
13. 육성돈에 대한 캐나다산 채종박의 급여효과.....최 성식, 한인규, 최진호
14. 소의 고사리 증독에 관한

- 시험연구.....김오남, 이정택, 김형균, 강태숙, 김홍도, 김영호
15. 산란계에 대한 건조우분 급여시험.....강 태항
 16. 양돈용 에너지 사료로서 고구마의 이용에 관한 연구(제 1보→옥수수 대치사료로서 고구마 페리의 급여수준.....곽종형

제 2 발표장

1. 돼지의 조정기능 발달과 내동성에 관한연구의 17편

제 3 발표

1. 난용중계의 난중 증대성과 기타 경제형질의 유전력 및 상관관계에 관한연구.....한 상욱, 오봉국
2. 닭내장육을 이용한 소세지 제조에 관한시험.....송계원 의 16편

배합사료공장 신설불허 방침



지난 4월 7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옥수수등 도입사료곡물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공장의 신규허가를 앞으로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1월 정부의 축산시책의 전환에 따라 곡물의존도가 높은 배합사료공장의 신설을 억제하고 국내사료자원을 활용할 사료공장의 설립을 적극지원키로 한데 있다. 농수산부는 현재 전국

에 74개 배합사료 공장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영남지방에 편중되어 있어 사료의 지역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줄뿐 아니라 경쟁이 심해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부는 기존 배합사료공장의 시설기준을 대폭강화하여 공장건물, 저장설비, 분쇄시설, 계량 및 수송장치 실험시설 등의 요건을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연말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공장은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사료판매부진으로

종전가격으로 판매경향

배합사료가격이 지난 3월 20일 사이에 13~15%선에서 재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료 공장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료가격은 1월중에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받고있는 실정이다. 사료업체는 지난 2월 25일부터 환율인상전에 확보되었던 원료를 모두 소모함에 따라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사이에 사료가격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어 각 공장별로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15% 정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상승 압박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예상되자 양축가는 경영비의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여분의 사료를 비축, 가수요가 늘어났다. 또한 사료판매가 전년보다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는 사료비의 인상으로 경영비의 압박이 증대되어 소규모 양축가가 문을 닫은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러한 가수요의 증대등으로 사료가격을 다시 인상했다고는 하나 양축가가 사료를 구입하는 량이 줄어들게 되자 각 사료공장들은 종전가격으로 사료를 판매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의 판매가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어 사료공장들은 판매경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며 심지어 1~2개월의 외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사료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사료판매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축가 입장으로 볼때 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료공장이 종전가격으로 사료의 판매경쟁을 벌리게 될때 사료의 품질저하가 예상되어 궁극적으로 양축가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4년 사료공장별

배합사료 생산실적발표

한국사료협회가 집계한 1974년도 사료공장별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발표되었다. 생산실적이 많았던 10개 사료회사는 아래와 같다.

1. 삼성사료 73,884 ㄲ
2. 제일사료 58,072
3. 한국카아길 53,274
4. 천일곡산 51,899
5. 퓨리나 코리아 51,171
6. 대한사료 43,437
7. 흥성사료 35,138
8. 한일사료 34,285
9. 한국축산 32,370
10. 동아제분 26,961



대한 사이로 곡물검사 세미나 개최

—미국소맥협회 John, A. Browning 초빙강연—

대한사이로에서 주최하는 곡물검사 세미나가 지난 4월 16일(수) 오후 1시부터 각 사료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올림포스 호텔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대한사이로 주식회사의 소개, 미국소맥협회 전문가인 John, A. Browning씨의 곡물표준강의, 대한 사이로주식회사의 시설시찰, 카테일파티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는데 곡물표준강의에서 부라우닝씨는 옥수수 소맥, 보리등을 수분함량, 부패, 파쇄등을 검사하는 방법을 강의와 아울러 직접 실습을 하여 검사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는데 실무자들에 많은 도

움을 주었다. 강의를 끝난후 대한 사이로 현장견학에 들어갔는데 대한사이로는 양곡하역 및 저장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한미합작(50:50)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2일에 가동을 시작했다. 총 매지 13,000평에 사이로의 보관시설은 150,000톤으로 이러한 시설은 선진 외국에서도 그 규모에 있어서 대형급에 속하고 있다. 사이로 저장을 위해서 두크에서 부터 937m 입고용 콘베어벨트가 시간당 1,100톤을 수송하여 저장하게 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직영 밀크홀 개업

—4월 3일 축산회관 지하에—

서울우유조합에서 직접 경영하는 밀크홀이 축산회관 지하층에 마련되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밀크홀에는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많은 축산단체가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이번 개장된 밀크홀은 시유를 비롯한 초코렛 우유, 버터, 전지분유, 조제분유 등을 출고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특히 180cc우

유 한병에 45원에 판매함으로 일반 다방에서 팔고 있는 커피값에 비하면 반값에 지나지 않는다. 분위기도 다른 곳보다 조용하고 아늑하여 회합을 갖기에도 적합하다. 현재 축산회관에는 지하에 밀크홀, 1층 대구축협공판장, 2층 낙농상사, 3층 한국중축개량협회, 4층 대한양계협회, 5층, 축산단체연합회등의 축산단체들이 있다.

중축개량협회 황영구회장 학술논문 발간축하회

중축개량협회 황영구회장의 회갑기념 학술논문발간 축하회가 지난 3월 29일(토) 오후 5시 중구 필동에 있는 코리아하우스 민속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논문발간 축하회에서는 많은 축산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황회장의 업적을 축하했다. 東松 황영구회

장은 30여년을 축산계에 몸담아 오면서 축산국장, 축산시험장등을 역임 했으며 현재는 한국중축개량협회 회장을 비롯 한국낙농, 축산단체연합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구라파, 미주, 뉴지란드, 일본, 호주등 축산업계를 시찰한 바 있다. 이번 황영구 회장의 학술논문집에는 Aurofae 2A의 칩가시험등 14편의 논문과 황회장이 축산시험장 대관령시험장시절

의 수필인 "대관령과 나의 生活"이 수록돼 있다.

양계협회 전북지부 신회원 2명 가입

전북지부는 지난 3월중 신임 회원 2명의 가입을 승인하여 회원수는 총 6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새로 가입된 회원은 아래와 같다.

이한주: 전주시 중화산동 2가 139(산란계 1,500수)

김동진: 전주시 효성동 1가455(산란계 700수)

공고

지난 3월 28일 대구 감별 학원에서 실시한 감별사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박 점 수 (갑종)
2. 권 일 홀 (")
3. 김 병 균 (")



축산단체 연합회

축산법 개정작업 추진에 활발

한국축산단체 연합회는 지난 3월 당국으로부터 축산법개정안의 제출요청을 받고 축산업계 각 분야 별로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 양계협회는 지난 4월 22일 축산법 개정작업의 양계분야에 대한 보완사항을 협의

한데 이어 각 단체별로 그 개정작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축산법은 63년 6월 주로 가축의 개량, 증식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그 보완이 요청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측의 요청은 4월중 각 축산단체와의 의견절충을 거쳐 구체화하여 정부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돈육 대일 수출 호조

—성수기 맞아 수출 계속 늘어날듯—

국내 돈육업계는 지난 2월말로 272만4천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연간 수출계획의 27%를 넘는 호조를 보였는데, 이러한 돈육수출의 호조는 수출가격이 톤당 2,300불에서 2,400불로 상승하였고 일본의 돈육수입제한 철폐움직임으로 수출이 증대된 것 같다. 특히

일본은 여름철이 돼지고기 소비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수출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돈육수출이 늘어 남에 따라 업체도 주무당국과 활발한 접촉을 벌임으로서 돼지고기 수출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 정 병기씨 : 한국 카아길 수원공장 품질관리과장에서 한수이남 지역판매과장으로

● 노 대한씨 : 한국 카아길 평택농장에서 충청지역 판매부장으로

● 김 관익씨 : 정착지역 판매과장으로

※ 동물약품협회의 1974년도 약품판매 실적 발표되었습니다. 36페이지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6월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업계단신 ■

● 현대양계사는 지난 4월 9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축산발전을 위한 확대 간담회를 갖고 한국축산업계가 나아 갈 좌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가졌다.

● 한국축산기자회가 주최하고 미국사료곡물회가 후원하는 한국 축산발전에 관한 심포지움이 4월 29일(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호텔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심포지움은 현재 축산업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에 관하

여 진지한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 한국축산학회는 지난 4월 13일(일) 중앙대학교에서 친선 정구대회를 개최, 회원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기여.

■ 인사이동 ■

● 김 수문씨 : 월간양계 편집부에서 한국화이자 농축부로

● 홍 현신씨 : 한축 인천사료공장 입사(서울농대졸)

● 박 건영씨 : 대성미생물 판매부로

● 서 규석씨 : 한국 카아길 평택농장에서 동사 한수이북 지역판매과장으로

